

2026. 6. 15

ETP전략팀

임은혜 Senior Analyst
e0124.lim@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ETFact Check

투자가 시장에 끝까지 살아남게 만드는, 자산배분형 ETF

- 올해 혼합채권형 ETF 다수 상장되며 주목
- 자산배분 ETF는 하락 변동성 방어와 맞춤형 자산 배분 전략에 강점
- 더불어 퇴직연금 계좌 내 실질 주식 비중 극대화 전략에도 유효

자산배분 및 혼합채권형 ETF 부상

- 최근 단기 고수익을 쫓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함께 주식과 채권을 섞은 '혼합채권형 ETF'가 다수 상장되며 주목받고 있다. 매크로 및 지정학적 변동성이 커진 현 국면에서 자산배분 전략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수익 관리에 강점을 지니며, 특히 장기적인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있어 필수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락 변동성 방어와 맞춤형 자산 배분 전략

- 자산배분 ETF는 주식의 하락 변동성을 채권 및 대체자산으로 방어하여 투자자가 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룰베이스 혹은 운용역의 재량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비중을 유지하므로, 하락한 자산을 저가 매수하고 급등한 자산을 차익실현하는 자동 리밸런싱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현재 ETF 시장에는 투자 성향과 시장 국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상장되어 있다. 전통적인 '고정 비중 할당 전략(60:40 등)', 매크로 환경에 일관된 성과를 내는 '위험 및 거시경제 기반 전략(올웨더 등)', 유연하게 비중을 조절하는 '전술적 및 테일리스크 전략' 등으로 나뉘어 목적에 맞는 동적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투자전략: 연금 내 실질 주식 비중 극대화 및 주도주 집중

- 올해 국내에 12개의 채권혼합형 ETF가 신규 출시된 주요 이유는 퇴직연금(DC형, IRP) 내 운용 제약 극복이다. 위험자산 한도 70%를 채운 뒤, 남은 안전자산 의무 편입 비중(30%)을 혼합형 ETF로 편입할 경우 계좌 전체의 실질적 주식 비중을 82% 수준까지 끌어올려 포트폴리오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 나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 주도주를 담고 나머지를 국고채로 채우는 단일종목 채권혼합형 ETF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개별 기업의 높은 성장성을 누리며 채권 이자로 하방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어, 연금 계좌 내에서 장기 수익률을 현실화하는 구조적이고 전술적인 장치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자산배분형 ETF

올해 다수 상장된 혼합채권형 ETF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신규 상장 이후 주목받으며 투자자들이 단기에 높은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ETF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만 큼이나 올해 다수 상장된 ETF 유형이 있다. 주식과 채권을 섞은 혼합채권형 ETF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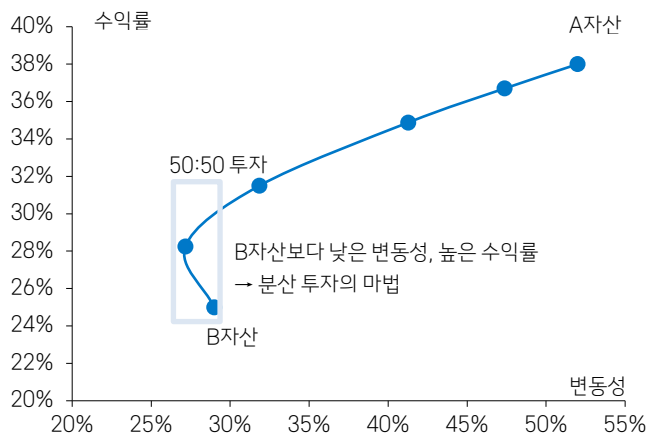
ETF는 생겨난 근본이 여러 기초자산을 동시에 담는 '분산투자'에 있다. 기초자산 분산 투자, 즉 자산배분에 강점이 있다는 말이다. 특히, 올해처럼 매크로와 지정학 할 것 없이 시장 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자산배분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포트폴리오의 위험-수익 관리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일반 주식 계좌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일지라도 퇴직연금 자산 투자 관점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산배분형 ETF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우리의 노후를 걸 수는 없다.

자산배분 ETF 투자의 효과

자산배분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주식과 채권, 기타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각각 정해진 비율대로 투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자산 배분 ETF는 이를 ETF로 구현해 놓은 것이다. 자산배분 ETF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투자자는 효과적인 변동성 통제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 배분 투자의 효과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개별 자산 투자보다 단위 위험 당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 오래된 증시 격언 중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산배분 ETF의 특징으로는, 첫째, 펀드가 추구하는 투자 목표와 결과 추구 전략이 명확하다는 점, 둘째, 시장 상황을 고려한 동적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셋째, 시장 변화에 펀드 자체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넷째, 운용역이라는 전문가의 자산배분 포지션 관리이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투자 전략 자체가 ETF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운용보수와 거래 용이성이라는 장점도 더해진다.

포트폴리오 변동성-수익 비교: 분산투자의 마법구간 발생



자료: 삼성증권

자산배분 ETF의 특징 및 기능

- | | | | |
|---|-----------------------|---|--------------|
| 1 | 위험 관리 & 안정적인 수익 | 2 | 시장 변화에 대응 가능 |
| 3 | 투자 결과에 대한 목표가 명확 | 4 | 낮은 운용보수 |
| 5 | 시장 상황 고려한 동적 자산 관리 가능 | 6 | 거래 용이성 |

자료: 삼성증권

특히, 장기 투자 시 자산배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미국의 S&P500 지수는 지난 20년간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약 15%의 하락하는 구간이 매년 발생했다. 즉, 주식 시장이 장기적 우상향하는 기간에도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의미이다. 투자자들은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 연중에 발생하는 하락 변동성에 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연중에 발생하는 하락 변동성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자산배분 ETF의 경우 이 주식 변동성을 채권이나 대체자산 등과 혼합해 하락 낙폭을 줄이고 투자자가 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장기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자산배분 ETF는 룰베이스(rule-based) 혹은 운용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타겟 비중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락 변동성 장세에서는 하락한 자산을 저렴한 밸류에이션으로 담고, 급등한 자산을 차익실현 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

자산배분 ETF의 종류

ETF 시장에는 다양한 자산배분 ETF가 상장되어 있다. 각 ETF가 추구하고 있는 자산배분 전략은 '어떤 위험을 얼마나 감내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 국면과 목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이 쓰이고 있다.

첫 번째는 '고정 비중 할당 전략'이다. 자산군별 투자 비율을 고정해주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방식이다. 자산배분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주식과 채권을 60%와 40%로 각각 담는 60:40 전략 등의 전통적 자산배분 혼합 전략과 영구 포트폴리오(permanent portfolio, 주식, 장기채, 금, 현금을 각각 1/n로 담는 방식)가 대표적이다. 주식의 변동성과 인플레이션 및 침체를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산 배분 ETF의 종류

분류	전략	전략 설명	관련 ETF
고정 비중 할당 전략	전통적 혼합형	주식 60% + 채권 40% (대표적)	AOA (iShares Core 80/20 Aggressive Allocation)
			AOR (iShares Core 60/40 Balanced Allocation)
			AOM (iShares Core 40/60 Moderate Allocation)
영구 포트폴리오	주식 25% + 장기채 25% + 금 25% + 현금 25%	주식과 채권의 리스크 기여도가 50:50이 되도록 채권 및 레버리지 활용	NTSX (WisdomTree U.S. Efficient Core Fund)
			GAA (Cambria Global Asset Allocation ETF)
			RPAR (RPAR Risk Parity ETF)
위험 및 거시경제 기반 전략	리스크 패리티	주식 30% + 장기채 40% + 중기채 15% + 원자재 7.5% + 금 7.5% (예시)	ALLW (State Street Bridgewater All Weather)
			RAAX (VanEck Inflation Allocation ETF)
			COMT (iShares GSCI Commodity Dynamic Roll)
전술적 및 테일리스크 전략	전술적 자산배분	추세, 이동평균선, 거시경제 지표 등 시그널 바탕으로 비중 조절하여 MDD(최대 낙폭) 통제	PTLC (Pacer Trendpilot US Large Cap ETF)
			PTNQ (Pacer Trendpilot 100 ETF)
			LGH (HCM Defender 500 Index ETF)
블랙스완 및 Tail Risk 방어	극단적인 시장 폭락에 대비해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보험 성격의 ETF	실물자산, 원자재, 리츠, 비트코인 등 동적 배분	CAOS (Alpha Architect Tail Risk ETF)

자료: 삼성증권

두 번째는, '위험 및 거시경제 기반 전략'이다. 자산의 투자금액보다는 각 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위험 기여도나 거시 경제 국면을 기준으로 비중을 정한다. 주식과 채권의 위험 기여도를 각각 50:50이 되도록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는 '리스크 패리티'전략이나, 레이달리오가 대중화한 올웨더 포트폴리오(all-weather)가 대표적이다.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은 경제와 물가를 변수로 4가지 국면별로 자산군별 리스크 패리티를 계산하여 비중을 정한다. 어떤 매크로 환경에도 투자 성과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는, '전술적 및 테일리스크 전략'이다. 시장 상황이나 특정 목표 수익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형태를 말한다. 추세나, 이동평균선, 거시경제 지표 등의 시그널을 바탕으로 비중을 조절하여 최대 낙폭을 조정하는 형태의 '전술적 자산배분 전략'이나, 극단적인 시장 폭락에 대비해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보험 성격의 '테일리스크 방어 전략' 등이 있다

연금 투자 수단으로도 각광

국내에는 올해에만 12개의 채권혼합형 ETF가 신규 출시되었다. 이러한 공격적인 출시는,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에 대한 인식 변화보다는 연금 계좌에서의 운용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혼합형 ETF를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계좌(DC형, IRP)를 운용하다 보면 투자자입장에서는 위험자산 70% 투자한도(안전자산 30% 의무 편입 률)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시장이 좋을 때 주식형 ETF에 100%를 투자하고 싶어도 30%는 어쩔 수 없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묶여 뒀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에 다수 상장된 채권혼합형 ETF의 경우 비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퇴직연금 계좌에 편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험자산 비중을 간접적으로 확대해 포트폴리오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채권혼합형 ETF가 많은 인기를 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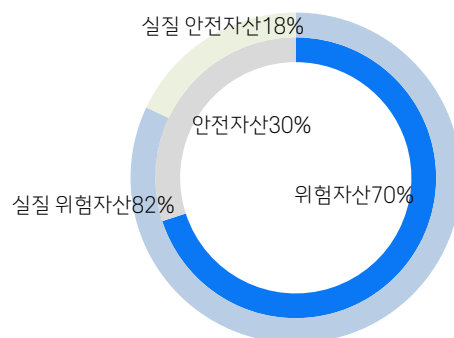
퇴직연금 계좌 위험자산 투자 한도

	연금저축계좌/ISA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없음	최대 70%
채권 혼합형 ETF 투자	100% 가능	100% 가능*

참고: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등은 70%까지만 가능

자료: 삼성증권

퇴직연금 계좌에 실질 주식 비중 극대화의 예: 안전자산 30% 비중에 채권혼합형(주식 40% + 채권 60%) ETF를 편입했을 때 실질 위험자산 비중은 82%까지 높아짐



자료: 삼성증권

채권혼합형 ETF는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로는 '실질 주식 비중 극대화'이다. 주식형 ETF로 위험자산 한도 70%를 채운 뒤, 나머지 안전자산 30%를 예금이 아닌 '주식 40% + 채권 60%' 구조의 혼합형 ETF로 채우면 이 경우 계좌 전체의 실질적인 주식 비중은 70%가 아닌 82%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근 금융위 감독 규정 변화에 따라 '주식 50% + 채권 50%'의 혼합형 상품도 등장하였다. 두번째는 단일 주도주 집중 투자이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 기업의 주식을 담고 나머지를 국고채로 채우는 단일종목 채권혼합형 ETF가 인기를 얻고 있다. 개별 종목의 높은 성장성을 누리면서도 채권 이자로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어 연금 계좌에서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산배분 ETF는 시장의 변동성관리와 투자자 심리 변화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적절한 자산 배분 ETF는 투자자의 나이, 투자 목표, 위험 투자성향, 투자 금액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자산을 섞어 투자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 스스로의 투자행태의 약점을 보완하고 최종적인 장기 수익률을 현실화하는 구조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상장 자산배분형 ETF 자산규모 순 Top 15

티커	종목명	전략	자산규모 (억원)	총보수 (%)
0162Z0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합산 50%에 국내 우량 채권 50% 전략	35,706	0.01
284430	KODEX 200미국채혼합	코스피200 지수 40%에 미국 10년물 국채 60% 전략	22,305	0.35
448330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	삼성전자 단일 종목 30%에 국고채 70% 전략	12,869	0.07
0177N0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삼성전자 25%, SK하이닉스 25%에 만기 5년 이내 국고채 50% 전략	12,330	0.07
438080	ACE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미국 S&P500 지수 30%에 미국 국채 70% 전략	11,519	0.15
438100	ACE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	미국 나스닥100 지수 50%에 미국 국채 50% 전략	8,731	0.15
251600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	국내 고배당주 50%에 국채 3년물 등 우량 채권 50% 전략	6,554	0.2
447770	TIGER 테슬라채권혼합Fn	테슬라 단일 종목 30%에 국고채(3~10년물) 70% 전략	5,155	0.25
490490	SOL 미국배당미국채혼합50	미국 배당성장주(US배당다우존스) 50%에 미국 10년물 국채 50% 전략	4,613	0.15
0019K0	TIME 미국나스닥100채권혼합50액티브	미국 나스닥100 성장주 50%에 국내 단기 국고채 50% 전략	4,304	0.25
435420	TIGER 미국나스닥100채권혼합50	미국 나스닥100 지수 50%에 우량 국고채 50% 전략	4,229	0.25
0040Y0	SOL 팔란티어커버드콜OTM채권혼합	팔란티어 주식 및 OTM 커버드콜 30%에 국내 우량채권 70% 전략	3,713	0.35
472170	TIGER 미국테크TOP10채권혼합	미국 테크 TOP10 종목 50%에 우량 국공채 50% 전략	3,462	0.25
448630	RISE 삼성그룹Top3채권혼합	삼성그룹 Top3(전자·바이오·로직스·SDI) 40%에 국고채 60% 전략	3,453	0.2
475080	KODEX 테슬라커버드콜채권혼합액티브	테슬라 주식 및 커버드콜 자산 30%에 국고채 70% 전략	3,204	0.39

참고: 6/14 기준

자료: Check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